**제1기 사역반 체코 단기선교 기행문**

작성자 : 서기 박정민 집사

**1. 준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던 중 유럽에 원숭이 두창 까지 번져가면서 ‘이 상황에 해외 선교를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과연 떠날 수는 있는 것인지’ 하는 고민 끝에 8월 31일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면서 내몰리듯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체코 한정훈 선교사님의 숙소 예약이 발 빠르게 이어지면서 총무이신 장정일 장로님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셨고 빠듯한 준비이니만큼 속도감을 보이며 일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아홉 번의 준비 모임을 가지며 기도로 찬양 연습으로 각종 현지 사역에 필요한 물품 준비로 분주했다. 환갑 넘으신 분이 네 분, 오십 대가 목사님 포함 일곱 분. 우리 중에는 무릎 수술을 하신 분도 간이 안 좋은 분도 계셨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교가 결정되면서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한 터였다. 관리해야만 하는 연약한 몸이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에 있어 잔뼈가 굵을 나이인지라 준비 작업은 시간 대비 빠르게 진척되었다.

**2. 출발**

11월 9일, 드디어 기도하고 준비해 온 단기 선교 출발일. 11월 기도 십일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오전 7시까지 교회로 모인 우리는 먼저 진단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다.

환전을 준비하신 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시기를 전날 환전을 했는데 반 정도의 금액이 빈다는 것이었다. 착오가 있다면 은행에서 연락을 주었을 텐데 연락 온 것도 없을뿐더러 연락을 취할 수도 없어 꿈자리만 뒤숭숭하게 밤을 지새웠노라고 하셨다. 아홉시가 넘는 대로 연락해 보자고, 은행은 컴퓨터와 숫자 작업이므로 별문제 없을 거라고 서로를 안심시키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출발 전 기도모임을 가졌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화물로 보낼 짐이 23킬로그램을 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하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교회 식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9시 15분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하는데 총무님께서 잠깐 다녀오겠다 시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니 잠시 앉아 기다리라고 하셨고 우리는 총무님의 지시에 따랐다. 삼십분 정도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 한 분이 여권을 분실하고 새 여권을 만드셨는데 정작 분실된 여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공항에서는 긴급 여권을 만드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고 신분증이 없으면 여러 작업들이 추가되어 시간이 더 늘어날 텐데 다행히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계셔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준비 과정 중에 총무님이 너무 꼼꼼하셔서 지친다 싶을 때도 많았다. 남편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총무님까지 내가 만나는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모두 꼼꼼하신 걸까 생각하다가도 꼼꼼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뒤처리는 깔끔하다는 위로를 스스로 하던 터였다. '1시 25분 비행기인데 도대체 공항에서 몇 시간을 있어야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애써 불평의 생각을 지우려 하던 나는 역시나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는 리더의 문제해결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십여 년 전 중국 단기 선교 때, 한 분이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떠나지 못했던 일이 기억나며 우리 중 한 분을 공항에 남겨두고 떠났더라면 가는 우리는 얼마나 허전하고 남은 그분은 얼마나 착잡했을지 생각하니 발전된 한국의 시스템과 여유 있게 출발시키신 총무님께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에서 독일 뮌헨으로, 뮌헨에서 세 시간 남짓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프라하까지 가는 비행기를 한 시간여 타고 체코 시간으로 밤 11시경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으로 익숙해진 한정훈 선교사님께서 마치 오랜만에 멀리 이국 땅에서 만난 친척처럼 우산 보따리를 들고 특유의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우리를 반겨주셨다. 공항 밖으로 나왔으나 어두워서 외국이라는 느낌도 없이 가랑비를 맞으며 숙소에 와서 짐을 풀었다.

참, 은행에서는 환전 중에 일어난 실수를 사과했고 공항에서 나머지 돈을 받았다. 돈과 여권의 문제를 가뿐히 해결하고 계획된 인원 모두 프라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공동 짐을 한 방에 모으고 다음날 노방전도에 쓸 물품을 포장하고 (부피 때문에 포장을 미리 할 수 없었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전 5시에 집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24시간이 지나서야 지구 반대편 또 다른 숙소에 몸을 누일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도 고단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 오일간의 여정**

선교 여행의 진짜 목적은 부대껴 가는 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마음으로 선교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출발일, 환전의 문제, 여권의 문제가 있었고 선교여행 첫날에는 여권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잊어버린 분이 계셨다. 그다음 날 독일로 가야 하는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시에 여권을 검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자 숙소에 계셔야 할 수도 있었으나 바로 당일 저녁,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로 가방을 주웠다는 연락이 왔다. 누군가는 돈을 통째로 잃어버려 온 가방을 다 뒤져 하루 만에 찾았다. 여권을 들고 나오지 않아서, 운동화를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호텔방과 로비를 네번씩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고 대다수는 틈만 생기면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선교 여행 첫날의 여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화가 나신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편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돌아가며 문제를 일으켰으니 평소 꼼꼼하신 목사님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로비에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눈이 커지시더니 얼른 식당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옳다고나. 목사님도 무언가를 놓고 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내려오시는데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 후 한식 사역으로 섬겼던 익투스 교회에서 우리에게 답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놓고 오셔서 누군가가 챙겨야 했고 하루는 옷을 거꾸로 입고 나오셨다. 어렵던 담임 목사님의 허점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고 오히려 목사님과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날, 선교사님은 빌라호라 언덕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후 스트라호프 수도원으로 안내하셨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작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니 왼쪽에 비투스 성당이 보이며 넓은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한 줄로 서서 프라하 시내를 바라보며 개신교 1퍼센트의 프라하 땅에, 동유럽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 한국 교회가 선진국이라는 명목으로 유럽 선교에 무관심하지 않고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후 프라하 기독교의 역사적인 설명을 들어가며 프라하성을 돌아보고 4시 30분부터 시작하는 프라하시내 노방 전도 장소로 이동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노방전도 장소에 내려놓으시고 사모님을 모시러 댁으로 가시고 우리는 낯선 공원에서 동유럽의 일찍 어두워지는 환경에 당황하며 '예수의 어부들을 어찌 알아보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던 노방 전도 사진 속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은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계셨다. 나는 “마틴” 하고 불렀다. 그분들이 뒤돌아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사실 그들중 누가 마틴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의 어부들은 십자가를 바닥에 세우고 마이크 장치를 하고 탁자를 세워 필요한 전도 용지를 진열했다. 지체 없이 말씀을 선포하며 노방 전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선교사님과 아내되신 김정희 선교사님이 오셨고 우리는 일렬로 서서 찬양을 시작했다. 평소 틈틈이 준비한 '송축해 내 영혼'을 체코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불렀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체코 프라하 시내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재웅 장로님은 7시까지 계속해서 손이 곱도록 기타를 치시고 우리는 영어, 체코어, 우크라이나어로 된 각종 복음을 전하는 책자를 들고 두서너 명씩 흩어져 공원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로 지하철 입구로 야시장이 서는 상점 입구로 흩어져 전도했다. 부흐께 제흐네이(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부흐께 밀루에(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비블레 쁘로바스(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전도 물품으로 준비한 매우 한국적인 동전 지갑과 컵 받침, 사탕을 드리면서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 돈을 요구할까 봐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렉크 쁘로바스(공짜로 드립니다)까지 네 문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입에 붙질 않아서 누구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누구는 핸드북 뒤편에 적은 것을 보며 손짓 발짓해가며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다.

모두가 열심을 내었으나 그중 김경희 권사님은 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가 저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교구 전도대에서도 무섭게 전도하는 그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칠 년째 필리핀 사람과 전화로 대화하며 영어를 배우고 있단다. 네 마디밖에 할 수 없는 나에 비해 권사님은 어찌나 유창하게 영어로 말을 이어나가시던지 부럽기 그지없었다.

평소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도 뼈져리게 느낀 것은 '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별한 성향의 사람을 만났다고 그제야 심리학을 공부할 수는 없다. 남편도 아이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수용할 수는 없듯이 평소에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선교지의 낯선 분들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때서 언어를 공부하면 늦는다. 언어고 성품이고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기회가 올 때 누리는 것이지 준비 안 된 사람이 멍석 깔아 준다고 뭘 하겠는가 말이다.

김정희 선교사님은 한복을 곱게 입고 북을 메고 몸 찬양을 드리셨는데 북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멈춰 서서 워십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이때를 이용해 전도지를 주니 매우 효과적이었다. 체코에 와서 언어는 안 늘고 외롭고 힘들 때 허리까지 아파 한 달여를 침대에서 생활하시는데 이십대때 하던 워십이 생각나더란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시 떠올리며 유튜브를 찾아보며 안무를 짜고 그 찬 돌바닥을 힘 있게 디디며 몸으로 찬양하시는 선교사님도 젊어서의 취미 생활이 준비가 되어 사역의 방향을 향해 물꼬를 튼 경우가 아닐까!

노방 전도를 마치고 '예수의 어부들' 멤버들과 식사를 했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캐나다 데이빗 목사님, 아들이 넷이라는 마틴 목사님, 프라하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 선교사님을 만난 덕분에 파푸아뉴기나로 가서 미전도종족 번역을 배우게 될 서른한 살 데이빗 선교사 후보생. 그리고 기도로 돕고 싶어 노방 전도를 처음 나왔다는 금발의 여사님. 젊은 데이빗은 자기 모든 가족이 크리스천이라며 매우 축복된 일이며 놀라운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총각인 자신은 총각김치를 알고 있고, 떡볶이, 불고기, 지짐을 좋아한다고 해서 웃었다. 나중에 보니 한 선교사님도 '지짐'이라는 단어를 쓰시느 걸 보고 또 한 번 웃었다.

둘째 날, 원래 계획되었던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은 취소되었다. 그들이 살 곳을 찾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정착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난민들과 만날 기회가 많으신 선교사님께 준비해 간 물품을 전달하고 우리는 먼저 폴란드의 한적한 동네 한켠에 있는 루터교회를 들렀다. 이후 헤른후트로 가서 모라비안들의 여정을 따라 지금은 숲만 우거져 있고 비석 하나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처음 집을 짓고 살았던 곳과 모라비안 무덤, 모라비안 교회, 진제도르프 백작의 성을 돌아 보고 오후 4시가 되어 늦은 저녁을 먹었다.

셋째 날, 토요일은 오전 일찍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바츨라프 광장을 지나 얀 후스 광장, 베들레헴 채플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선교사님 댁으로 가서 한식 사역 준비를 하는 여정이었다. 우리가 준비해 간 한식 사역은 우리의 인원이 작은 고로 간단하게 김밥과 소고기 뭇국을 하기로 하고 햄과 우엉, 단무지까지 준비해 갔으나 갑자기 체코 사람들이 만두를 좋아하며 간단한 딤섬 종류의 만두나 먹어보지 한국 만두 같은 것은 먹어본 일도 없을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추김과 우리 팀에 두 명의 만두 장인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선교사님께 전달되면서 갑자기 만두를 빚게 되었다. 만두피는 파는가 하고 여쭤보니 있을 거라 하시더니 더 좋은 것이 있노라고..... 선교사님 댁에 칼국수 뽑는 요리 도구가 있는데 만두피는 왜 못 뽑겠냐고.....

그리하여 토요일 오전 일정을 빠르게 마치고 쇼핑몰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여자 다섯 명은 선교사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아시안들이 운영하는 마트로 남자분들과 여자 두 명은 이번 선교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답례할 물품을 사러 쇼핑몰에 남으셨다. 결국 만두피는 구경도 못했거니와 만두 장인들께서 밀가루로 반죽한 만두피를 사랑하셔서 만두피도 우리가 만들기로 결정되었고 여기저기 시장을 들러 선교사님 댁에 도착한 시간이 네시였다.

그 와중에 차 댈 곳이 없어 좀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오신 분이 하필이면 그 전날 도로가에 있는 헤른후트의 비석을 보기 위해 걷다가 낙엽으로 덮인 구덩이에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 빠지신 장정일 장로님이었다. 장로님은 발바닥에 살점이 떨어지는 상처까지 있었는데 문 앞에서 벨을 눌러도 답이 없고 우리 중 누구라도 받기를 고대하며 전화를 돌려도 아무 반응 없는 상황에서 숙소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셨단다. 그런데 이 분, 김밥 재료에 들어갈 계란 부침으로 숙련되셔서 만둣국에 들어갈 달걀지단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내시는 달걀 요리의 장인이 되셨다.

칼은 무뎌서 한쪽 옆에서는 칼을 갈고, 이러다 날 샌다 싶어 커터기를 찾고, 집안일 안 해본게 분명하신 목사님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사진을 찍으시더니 급기야 당근 채썰기에 도전, 결국에는 딱 맞는 일을 찾으셨으니 밀가루 반죽을 칼국수 기계에 넣고 만두피를 뽑아내는 일이었다. 만두피는 검어지고 목사님 손은 희어진다고 농담을 하며 웃고 또 웃었다.

깁밥은 채수애 권사님이, 만두는 임명순 권사님이 진두지휘하시며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기 자리를 찾고 땀이 흘러내리기까지 온몸으로 반죽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설거지만 주구장창 하셔서 부엌 밖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셨다. 다행인 건 거실에 정말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 일하기에 유용했다. 이 와중에 한 선교사님은 체코산 삼겹살을 구워 주시고 김 선교사님은 호박잎을 넣은 된장국을 끓여주시고 체코에서 직접 채취하신 명이 나물로 만드신 초절임을 내오셨으니 명이나물에 싸 먹는 삽겹살과 후루룩 마시기에 부담 없던 된장국은 치즈와 빵으로 느끼해진 입맛을 달래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정신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싶은데 한선교사님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게 보였다.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계신 그 어머니가 고향집에서 해 주시던 맛이라며 좋아하셨는데 맛도 맛이지만 한국말 왁자지껄한 그 잔칫집 같은 분위기를 만끽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즐겨 사 먹는 청정원 냉동만두로는 느낄 수 없는 이 사람사는 맛, 그 맛이 그리우셨을 두 분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둘 밖에 없어서 아무튼 나는 김정희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라는 선교사님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서 작은 위로가 되시겠구나 생각했다. 마지막 날 기도모임 중에 숙소로 두 분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김 선교사님께서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 둘 밖에 없는 이곳에서 너무 위로가 되었노라고 하셨다. 두 분 선교사님을 감싸고 항아리 기도를 하면서 모두 울었다.

넷째 날, 익투스 교회에서의 사역을 쓰려니 머리가 하얘진다. 토요일 밤 10시까지 음식 준비를 한 우리들은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은 준비한 재료들을 차에 싣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김밥에 들어갈 밥을 세 솥이나 하셨다며 밥맛이 기가 막히다고 자랑하셨다.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교회에 들어가니 모두들 기쁘게 반겨주셨고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이후 우리는 앞에 나가 특송을 하고 자리로 돌아와 체코어로 설교를 들었다. 찬양 가사가 앞에 뜨는데 이 장로님께서 카메라로 찍고 번역기를 돌려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주셨다. 한 시간여를 설교하시는데 조는 사람들도 없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 1퍼센트의 기독교를 선택하신 분들이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예배를 마치고 한쪽에 테이블을 나란히 놓아 주셨다. 일머리 없는 나로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사천리, 참으로 권사님들은 대단하셨다. 그런데 깁밥을 싸다 보니 밥이 모자라서 밥통을 찾는데..... 안 보인다. 사모님이 한 선교사님을 찾아보고 전화를 해 봐도 어디 계신 것인지 찾을 수도 없고 밥도 안 보였다. 김밥 한 줄과 만둣국을 드리려 했느데 김밥 세 개와 만둣국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 시간여 뒤에 선교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익투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며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전화조차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김정희 선교사님이 아무 식당에나 들러 밥을 공수해 오라시는 어명을 내리셨고 한 선교사님은 밥을 구해 오셨으니 결국 한선교사님과 밥은 같이 나타나신 셈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성도들이 만둣국에 감동하셔서 세 개씩 놓아드린 김밥조차도 그냥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며 웃었다. 이곳 분들이 만둣국을 워낙 좋아하는 식성도 일조했으나 이유인즉슨 김이 입 천장에 쩍하고 달라붙는 느낌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 옆에서 김을 안쪽에 말아 넣는 누드 김밥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밥이 없었던 것이다. 새 밥으로 누드김밥을 싸서 드리니 또 갖다 드시고 두번씩 갖다 드시고 남은 김밥과 만두로 도시락을 싸 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셨다. 한 선교사님의 계획대로 아이들에게 김밥을 직접 말아보게 해 주었더니 너무들 신나 했다.

다섯째 날, 급진 후스파가 본거지로 두고 카톨릭과 투쟁을 벌였던 타보르에 갔으나 후스 박물관의 보수 공사로 관람하지 못하고 얀 지슈카 장군의 동상 앞에서 타보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스키 크룸루프로 갔다. 사역도 모두 끝나고 다음날 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모두들 아쉬워하며 하루를 고스란히 즐겼다. 걷던 중 매우 매혹적인 검은색 나무다리가 있어 사진을 찍다 보니 수변에 예쁜 식당이 보였다. “선교사님, 정해놓은 식당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저기서 점심 먹어요.” “그러죠, 뭐”

쌀쌀했지만 우리는 그 이국적이면서 평온한 분위기를 놓칠 수 없어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막상 식사를 할 만한 메뉴가 없었으나 저녁을 또 먹을 것이니 간단하게 샌드위와 샐러드 종류를 먹기로 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아니어서인지 다른 식당의 삼분의 일 가격이었다. 모두들 탁월한 선택이라며 즐거워했다.

나는 요즘 공감과 수용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다. 한동안 '아이들을 공감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유행에 맞춰 공감해 주려고 용을 쓰곤 했다. 아이들이 이십 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나의 시어머니의 아들을 닮아간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의 패턴도 아빠를 닮아가면서 이 녀석들이 하는 말 “어려서는 몰랐는데 엄마에게 화 내시는 아빠의 감정이 이해가 돼요”라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도발적 언어인가!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 포기했다. 아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 닮은 아들을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하랴. 그 대신 아들의 문제를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아들에게 물어보니 캬~ 골머리를 싸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심플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공감을 포기하고 나는 어떤 태도로 가족을 마주해야 할까?' 하다가 '수용'을 붙잡기로 했다.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공감을 하려고 할 때는 공감하는 말을 하려고 말이 많아지고 공감을 못해준다 싶으면 죄책감이 듬과 동시에 내가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면 수용하려고 하니 상대의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되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

장황하게 공감이 어쩌고 수용이 어쩌고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이 “그러죠, 뭐”라고 하실 때 수용받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다. 몇 시까지 이곳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몇 시에는 어디에서 식사를 하기로 모두 정해 놓으셨다면 과연 내 의견은 수용되었을까? 때로는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얻는 것이 있고 때로는 느슨한 계획 속에서 얻는 것이 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어서 좋고 한 선교사님은 한 선교사님이어서 좋고 장 장로님은 장 장로님이어서 좋고 임 권사님은 임권사님이어서 좋고 블라블라블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한 선교사님과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섞어 반으로 딱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여름 피서를 가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금은 까칠한 내 남편과 사람 좋아하고 관대한 옆집 남편을 섞어 반으로 나누고 싶고, 남자들은 재미있고 긍정적이지만 일벌리기 좋아하는 내 아내와 말이 너무 없어 심심하겠다 싶지만 집에 먼지 하나 없는 깔끔한 옆집 여자와 섞어 반으로 나누고 싶다.

권사님 한 분이 아침 조식에 너 맛도 내 맛도 아닌 과일이 나온다고 하셔서 눈여겨보았더니 '허니두'라는 과일이었다. 멜론보다는 조금 크고 수박보다는 조금 작은 색깔이 허연 과일인데 맛은 참외와 멜론을 섞어 반으로 나눈 것 같은 맛이라고나 할까. 잘 익은 허니두는 맛있는데 조식으로 나온 것은 살짝 덜 익은 느낌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허니두는 푹 익었을 때가 맛있는데 그러면 깎아서 모양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후숙시키지 않고 내놓는듯했다.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섞어 반으로 나누면 덜 익은 허니두 같지 않을까? 교회의 큰 살림을 맡아야 하는 담임 목사님이 늘 도전적이고 추진력 있는 분이라면 당회와의 마찰은 얼마나 빈번할까? 반대로 선교사가 예측 불허의 외로운 남의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한 선교사님과 오일을 함께 지내고서 느낀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저런 성격이니까 호텔도 렌트카도 빠르게 예약을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들이셨구나' 하는 것이었다. 빛의 속도를 닮은 추진력이라고나 할까.....

**4. 얀 후스의 순교 영성**

내가 맡은 책무는 서기이고 단선을 떠나기 전 체코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자료를 찾다 보니 간단하게나마 체코의 역사를 숙지하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일정은 사역을 우선으로 물리적 거리를 감안하여 짜여졌기 때문에 첫날은 17세기가 배경이었다가 둘째 날은 14세기가 배경이었다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뒤죽박죽이었고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나가기는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장소 한 곳 한곳을 돌아보며 그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목숨을 건 투쟁적 기독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니 믿음의 선진들의 진리 수호를 위한 숭고한 정신을 느끼기에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르기보다는 역사적 순서를 따라 서술하고 우리가 둘어본 유적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 가기로 결정했다.

예수님께서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 이후,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종교를 크리스트교라 한다. 크리스트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리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쪽은 동로마 사람들의 '동방정교회'라는 크리스트교에서 시작했으나 조금 다른 분파가 생겨난다. 그에 반해 크리스트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성직자들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로 15세기 체코의 얀 후스가 이를 비판하다가 화형 당하고 백 년 뒤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개신교(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파생 되었다.

얀 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는 바츨라프 4세 때인데 그의 아버지 카를 4세는 14세기 중반에 재위한 왕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성장시킨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에도 오른 카를 4세는 프라하를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로 삼으며 중부 유럽의 중심도시로 급부상시켰다. 카를 4세의 동상은 카를 4세의 이름을 딴 '카를교'를 빠져나와 신시가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뚝 서 있었다.

구시가 광장에는 얀 후스의 동상이 매우 큰 규모로 서 있는데 그는 프라하 카렐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총장이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성서지상주의'를 펼치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얀 후스를 불러들여 회유한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자 1년 뒤 1415년 화형시킨다. 얀 후스의 동상 양쪽으로는 쓰러져가는 군중의 처절한 몸짓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의 안내로 둘러본 얀 후스 죽음 이후, 믿음을 지키고자 국내외에서의 저항과 투쟁의 삶을 돌아보니 그 동상에 왜 얀 후스만 있지 않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함께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선교사님은 얀 후스가 사역하던 베들레햄 채플로 우리를 안내하셨다. 나무색이 짙은 베들레햄 채플은 교회로 승인해 주지 않아 채플로 불렸다고 한다. 이곳에서 얀 후스는 일반인들이 쓰는 체코 말로 설교했다. 이것은 라틴어로 설교하던 그 당시 문화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우습다. 말을 알아들어야 말씀대로 살 터인데 대중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말씀을 전했다니 신은 중요하고 사람은 경시했던 중세 유럽 카톨릭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자국어로 전달되자 그간에 들은 말씀이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뭔가 꿈틀대었을 중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의 권위자들이 한 일은 베들레햄 채플을 핍박하고 폐쇄하려 했으며 결국은 얀 후스를 사형시킨 일이다.

재미있는 점은 교회 안 한켠에 크고 둥근 우물이 있다는 점인데 옆에 작은 문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드나들며 우물물을 퍼갔다고 한다. 하나님을 외치며 정작 자신들을 높인 당시 종교 권위자들에 반해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 베들레햄 채플에서 영적인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복음이 현재의 나에게까지 미친 그 영향력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우물의 의미는 '생수의 강'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 전율이 느껴졌다.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수원과 우리 민족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정성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원 교회 되도록 간구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과 직분자들 및 영유아부터 청년부, 소망 교구의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가 바른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기도했다.

얀 후스가 화형 당하자 그의 뜻을 따르던 보헤미아인들은 분노했고 1419년 후스파 군중들이 평의원 일곱 명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얀 후스를 지지하던 후스파와 카톨릭 세력 간에 15년간의 후스전쟁(1419~1434)이 발발하고 후스파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자 보헤미아 국왕이었던 지기스문트가 이끄는 십자군의 공격을 격퇴하며 선전을 펼치자 1433년 카톨릭 세력이 먼저 강화 조약을 제안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급진 후스파와 온건 후스파로 갈라지게 된다. 때를 놓치지 않고 카톨릭은 온건 후스파와 동맹을 맺고 1434년 급진파를 공격하게 되고 급진 후스파의 패배로 후스전쟁은 마무리 된다.

후스는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성찬식을 일컫는 이종배찬을 주장했는데 이때 카톨릭은 성직자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만찬의 떡과 잔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속의 은총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후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떡과 잔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성만찬의 잔은 후스파의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타보르에 위치한 후스 박물관으로 네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아주 좁은 골목길이 꼬불꼬불 이어졌다. 틀림없이 잘 못 온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참으로 아기자기한 영화 세트장 같은, 광장이라 부르기에는 크기도 애매한 '지주카 광장'이 나왔다. 후기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 등 여러 건축 양식으로 지은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광장의 한켠에 급진 후스파의 한 지도자인 애꾸눈 얀 지주카(1370~ 1424)의 동상이 있었다. 타보르는 급진 후스파중에서도 매우 투쟁적이었던 얀 지주카에 의해 세워진 도시다. 카를4세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쯤 된다면 이 분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격이라고나 할까. 1422년 동부 보헤미아 일대에서 십자군을 물리친 용감한 장군이었다고 한다.

선교사님은 이미 은퇴한 나이가 지긋한 퇴역장군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진리를 위해 죽은 지도자를 생각하며 고민했을 시간을 묵상 해 보자고 하셨다. 진리가 악에 의해 묻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선한 것을 다음세대에 전하겠다는 의지로 기어코 전투를 벌이다가 순교하신 지슈카 장군을 통해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다.

후스 박물관 지하는 도시 아래 지하와 연결되는데 모든 지하실이 하나로 연결된다면 길이가 14킬로미터나 될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지하와 연결된 부분은 지주카 광장 아래에만 국한되어 있어 550미터 정도라고 한다. 한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한국어 설명도 붙어있다는데 아쉽게도 보수 공사 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후스 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매우 작아 보였는데 현관 문 옆으로 창틀 모양의 장식장이 있었고 이곳에도 후스주의를 상징하는 잔이 진열되어 있었다.

보헤미아의 왕권을 차지한 합스부르크가(1526~1918)는 보헤미아에 중앙 집권화와 카톨릭화를 추진 하였고 경제가 발달한 보헤미아를 착취했다. 게다가 페르디난트 2세가 국왕에 즉위하면서 강력한 신교 탄압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신교도들의 항의 과정에서 섭정관들을 창 밖으로 내던지는 2차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1618)이 발생한다.

일년뒤 보헤미아 의회는 국왕 선출제, 왕권 제한, 카톨릭 제한등릉 선언하고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를 국왕으로 선출하자 페르디난트 2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른 후 카톨릭 동맹을 결성하여 보헤미아 원정에 나서게 되고 유럽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 초기 전투가 빌라호라 전투다. 사망자가 팔백만이었다는데 고작 두시간만에 보헤미아 군대가 패배하고 개신교 자유운동을 일으킨 27명은 반란죄로 처형당했다. 구시가 광장 한켠 바닥에 27개의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사형이 집행된 장소라고 한다. 빌라호라 전투의 패배로 보헤미안 귀족들은 죽거나 쫓겨나고 보헤미아 안에서의 기독교는 급격히 몰락해 갔다.

빌라호라는 나지막한 언덕이었다. 새벽까지 내린 비로 한사람 간신히 지나갈 질척한 길을 졸로로니 걸어 올라갔다. 언덕에 올라 넓은 풀밭을 바라보며 영화에서 보던 17세기 중세 유럽의 전쟁을 떠올리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얀 후스의 가르침이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순교 영성이 오늘 날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5. 모라비안의 선교영성**

폴란드 루터교회를 방문했다. 본당 앞 계단에는 찌그러진 캔이 뒹굴고 있었고 본당 문은 잠겨 있었다. 얀후스는 죽으며 “지금은 거위 한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백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단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도 하시듯 백년 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개신교가 생겨난다.

그냥 독일로 가도 될텐데 선교사님은 굳이 루터교회를 들러 폴란드 땅을 딛고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묘지가 있었는데 특이하게 무덤위 석판 위에 등불이 놓여있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보헤미아에서 살던 모라비안들은 1722년 로마 카톨릭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 독일 드레스덴의 진제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이주하였다. 법학을 공부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후 목사가 되고 삼백명 이상 되는 종교적 피난민들에게 땅을 내주고 헤른후트, 곧 '주님의 망대'라는 마을을 만들고 모라비안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들은 경건과 실천의 훈련 공동체로 스스로를 가다듬었고 당시 대다수의 경건주의 공동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구주가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중요시 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고 실천했다. 진젠도르프의 집 또한 이층이긴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보통 주택 같았고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 있을뿐이라고 하셨다. 임 권사님께서 진젠도르프도 대단하지만 그 가족도 참 대단하다고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 그의 아내는 남편과 같은 신앙 노선을 걷고 있었고 묵묵히 남편을 내조했던 여인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이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던 그녀 생애 마지막 15년은 찬송가도 작곡하며 열심으로 집안일을 꾸려갔다고 하니 참으로 부창부수다.

세계 각지로 활발한 선교를 벌였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고 존 웨슬리의 감리교 창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의 직업 윤리가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자 감자를 보급하고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귀츨라프 선교사가 모라비안 출신이라고 하셨다. 선교사님은 이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 땅에 선교가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 후예들이 현재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모라비안 형제 교회를 들렀다. 전날 화려하고 웅장한 카톨릭 교회를 본터라 더욱 소박하게 보이는 이 교회는 바닥에 니스 칠 조차도 하지 않은듯 흰 색에 깔끔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왼편에는 간소화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오른편에는 긴 장의자로 사각형을 만들어 마치 담화라도 나누는 만남의 공간처럼 꾸며져 있어서 (꾸며져 있다기 보다는 배치되어 있었다) 참으로 후투루마투루 사용하는 좀 넓은 가정교회 같은 맛이 나는 곳이엇다. 마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나도 순백의 순수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이후 모라비안 묘지에 들렀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처 없이 걷다가 이곳에 정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 고군분투했을 그들의 무덤 앞에서 후트버그 기도탑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각 한 시간씩 기도했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하며 120년을 유지했다고 하니 절박했을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을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잔디가 잘 가꾸어진 묘지 터 한가운데 누가 봐도 흙 길인 좁은 공간에 멀리서 보면 벌집 같은 상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곳 정원사 할아버지께서 위에 덮은 나무 뚜껑을 열어주시니 진젠도르프의 무덤이 있었다. 그 많은 땅을 내어주고 먹고 살도록 배려한 그가 자기 무덤 하나 근사하게 꾸며 두어도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으련만 그의 무덤은 소박하기 그지 없었다. 다만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무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두었나 본데 그 뚜껑마저도 소박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드넓은 주변의 땅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선교사님께서 “저쪽은 폴란드, 저쪽은 체코, 여기는 독일” 하며 설명을 해 주셨다. 그날따라 날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우리는 그 황량함을 맘껏 느끼며 그 시절 춥고 배고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먼 이국땅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을 모라비안들을 생각했다. 우리의 삶도 가족도 구역도 일터도 모라비안의 단순하고 크리스천 다운 삶을 본받기를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했다.

**6. 돌아와서**

일반 관광이었다면 중세 유럽의 궁궐도 들어가고 화려한 성당도 관람했을 테지만 우리는 궁궐은 정원만 보았고 화려한 성당은 티켓 받기 전 입구에서 휙 둘러보고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뭘 보고 왔냐고 할 그런 여행을 했다. 그 유명하다는 카를교도 해가 다 진 저녁녘에 둘러보는 바람에 섬세하다는 열두 개의 조각상은커녕 프라하의 저녁은 엄청 어둡다는 사실만을 깨달았다. 평소에는 야경이 그리 아름답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도로보다도 어두웠다. 한국에 돌아오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하고 왔냐고 해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방 전도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먼 데까지 가서 전단지 돌리고 왔냐며 웃는다. 복음을 모르는 내 동생, 같이 웃을 수밖에......

'새생명축제' 이동원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이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생각하시며'를 원어로 보면 '깊은 생각'이라고 하셨다. 깊이 생각해서 만드시고 돌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니 인간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아래에 두셨다고 하신다. 그러니 사탄에게 지지말고 잘 가꾸라고 하신다.

환전을 잘 못하고 분실된 여권을 가져오고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낙엽으로 덮인 구덩이에 한 발이 푹 빠지고 체코에서 독일로 가는 길에 차 문이 고장 나고 처음 가보는 길에 내베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홉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두 번밖에 연결이 안 될지라도 게다가 한 치 앞이 안 보이도록 안개가 뒤덮여도 이 안갯속에 우리만 두고 가버리면 어쩌냐는 불평을 하지 않고 도착했을 때 반갑게 서로 맞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일 것이다. 멀리 한국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팀 두 명의 중보자와 송원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체코로 선교를 떠날때 세가지 사역 준비를 해 갔다. 그러나 현지 형편상 두가지 밖에 하지 못했다. 체코까지 와서 사역이 너무 적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단기 선교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 부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이 모국의 편하고 정겨운 말을 마음껏 쓰며 웃으며 걸으며 먹으며 현지 사역을 이어갈 힘을 충전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출발 전 기도모임 때 '우리는 철저히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이라고 한계를 정하고 기도하시던 담임 목사님의 기도문이 생각났다. '아하, 이 말씀이셨구나.'

두 분의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떠나는 '데이빗'이라는 체코 청년을 키워내셨듯 나도 예수님의 바른 제자 되어 사람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가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알 것 같았다.

프라하 공항에서 한 선교사님께 “우리랑 한국 가고 싶으시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아직 이곳에 할 일이 남아서요.” 하신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큐티 말씀은 사사기 16~18장 말씀이었다. 단 자손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사는 레위 청년에게 묻는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 그리고 나는 누가 이리로 인도하였는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 두 분을 체코에서 만났다. 15세기 얀 후스, 16세기 마틴 루터, 18세기 진젠도르프,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두 분의 선교사님.

결국 사람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